

담 화 문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부터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안전운행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공유경제라는 미명아래 추진되었던 카풀(자가용택시)을 목숨을 바친 투쟁으로 막아 내자마자 이제는 타다(렌트카택시)가 또 다시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택시를 통한 새로운 플랫폼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서 일부 몰지각한 조합원들은 6개월 후에도 있을 이사장 선거에 출마선언을 하며 선거규정을 악용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일삼는가 하면 잣밥에만 눈이 멀어 사실을 왜곡하고 각종 유언비어로 조합과 조합원들의 판단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8일 조합 이사회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을 논의 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 보다 조합원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담화문을 공고하기로 결정하여 대부분 조합원님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합과 이사장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내용과 허위사실에 대한 진실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1. 영세가맹점 단말기 추진 사업

▶ 영세가맹점 사업은 당시 카드수수료 약2.7%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0.8%(체크0.5%)을 추진하기로 이사,대의원회 의결을 받아 몇 개월에 걸쳐 홍보를 진행하고, 인천시로부터 단말기 지원금까지 받아 진행한 공식적인 사업이었으며, 진행과정에서 조합원님들께 내용설명과 확인서까지 받으며, 조합원님들의 선택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영세가맹점 카드단말기 추진으로 이비, 스마트 카드 단말기 장착 조합원도 약2.7% 카드수수료가 현재 약1.2%까지 인하되어 조합원 여러분께 엄청난 혜택의 결과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다만, 스마트카드사와 이비카드사가 그들의 기득권 보호 명목으로 선불교통카드 결제뺨을 제공하지 않아 영세가맹점으로 전환한 조합원님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송구할 따름입니다. 하루속히 해결하여 불편함을 해소 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표가맹점(스마트,이비)의 상업적 반대 논리에 동조하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 카풀 반대 집회 및 성과

▶ 전국 택시업계가 일치단결하여 24시간 카풀을 하겠다는 카카오와 이를 인정하려는 국토부에 대항하여 수개월에 걸쳐 투쟁한 결과 결국 대기업 카카오가 24시간 카풀서비스를 철회하며 자가용 택시를 막아냈습니다. 일부에서는 타다, 소카, 차차등이 난무하여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는 쓰레기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타다, 소카, 차차등은 렌트카로 택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카풀(자가용택시) 투쟁과는 별개로 새롭게 렌트카 택시를 막는 투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카풀투쟁 비용 사용

▶ 카풀집회(1차,2차,3차) 총동참인원 약 4,500명의 교통비 및 식비 제공등 사용비용 내역은 총 약1억5천만원이며, 이중 8,700만원은 연합회에서 지원 받았으며, 조합 사용금액은 최종 약6,400만원정도입니다. 이는 이사,대의원의 승인과 조합 감사를 통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연합회로부터 8,700만원 지원받은 것은 이사장의 역량과 노력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대위 결정과 이사,대의원 결의로 투쟁과정에서 분신하신 고임정남열사께 고인의 명복과 택시업계의 성의를 표하고자 부의금 및 투쟁기금으로 1만원의 특별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허나, 윤00조합원과 동조하는 일부 조합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의결한 사안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합원들의 집회 참석을 위해 약소하나마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한 것이 횡령이며, 조의금을 걷은 것이 횡령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반드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공제분담금 인상

▶ 자동차 보험료는 일반보험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제조합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많아 보상금액이 많으면 분담금을 더 내야하고 사고가 적으면 분담금을 덜 내는 말 그대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조합원을 위한 단체입니다. 사고건수의 증가와 수년째 보험료 동결로 운영상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을 공제분담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일반보험사 보험료 대비 공제 분담금 수준은 약 100:60% 수준)**

5. 조합 복지충전소 보증금 10억 상환

▶ 복지충전소는 조합으로부터 총 33억원을 대여 받아 매달 이자를 조합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자 부담을 줄여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상향 정책으로 적자가 예상되어 E1과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2복지충전소 임대보증금 15억을 5억으로 낮추어 조합 복지회비대여금 22억중 10억을 상환한 것입니다. 조합은 상환된 10억을 은행에 예치하여 조합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각종 경조사비 및 이직위로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충전소는 000소장이 운영하여 1년 6개월에 약 2억원의 적자를 보던 것을 현 집행부가 인수하여 여러 차례 경영개선의 노력(1충전소:15억 전세를 3억 전세, 2충전소: 1,100만원 월세를 5억 전세로 재계약)을 통하여 현재 흑자로 전환시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칭찬하지 못할망정 폄하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6. 조합비 사용내역 공개

▶ 조합원 여러분께서 납부하고 있는 월 조합회비 8,000원, 복지회비 4,000원의 사용 내역은 조합의 공식기구인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승인받아 조합 소식지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예산서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세부사용 내역을 공개 안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무지에서 나오는 억지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7. 개인택시 매매가 하락

▶ 최근 개인택시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경제적 논리에 따라 양도자가 많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개인의 정치적 이득만을 생각하는 몇몇 조합원들이 집행부 결정을 폄하하고 유언비어 유포, 억지주장에 따른 괜한 위기감 조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현 상황을 희망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에서는 매매가 하락을 막기 위해 매매상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매매가 하락을 위한 대책 협의하였으며, 5.25일 이사회에서는 조합에서 직접 직거래 매매를하기로 결의하여 매매가 상승을 위해 제도적 노력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8. 직원 급여 인상

▶ 인천개인택시조합 직원 급여는 전국 타시도조합 대비 최저수준으로 상여금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만큼만 급여가 오른 것입니다. 일부에선 이사장 판공비를 인상 했고 급여를 80여만원을 인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허위사실이며 지난해 직원 급여만 인상되고 이사장 급여는 동결되어 올해 급여만 약4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9. 조합복지회비 고갈시켰다는 주장

▶ 조합회비는 월 12,000원입니다. 이중 조합운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합원영비는 월8,000원이며 조합원님들의 각종경조사비, 이직위로금 지급에 사용되는 복지비 월4,000원입니다.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이직위로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복지회비 운영 상황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직위로금은 복지회비 1인당 1년 ₩48,000원을 걷어 이직위로금 ₩122,970원이 적립되어 양도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일종의 전별금제도입니다. 30여년전에 조합원수가 얼마되지 않을 때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수십년간 수정,보완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그동안 20년,30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의 양도수가 증가되면서 지급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복지기금 적립금이 1년 평균 약1억 가량의 적자운영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직위로금 제도는 모순이 많아 조합과 조합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임을 설명하였으나, 조합을 폄하하고 공격하기에 혈안이 된 일부 조합원들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마치 현 집행부가 조합비 고갈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직위로금 제도는 우리 조합원님들의 전체의 문제이므로 대책 논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10. 각종 소송 및 고소고발

▶ 지난 2016년 당선된 이사장을 이사장당선이 무효라며 조합원 백00,강00,유00,최00,정00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1심기각, 2심기각 판정을 받았지만 또 잇그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2차에 걸쳐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총 5회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조합의 잘못을 탓할 자격이 있을까요? 또한, 윤00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사무비등 수고비를 달라고 소송하여 대법원까지 가서 조합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돈을 안준다고 조합 이사장 및 직원을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동조하여 자료 제공하고 부추기며 조합을 공격하는 몇몇 조합원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인천시에 민원을 넣고,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로 일관하며, 조합 이미지 훼손 및 원활한 업무진행을 방해하여 9,000여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11.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

▶ 2018년도 예산편성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업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정치인들과의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선거사무실 개소식이나 출판기념회에 참석 비용으로 이사.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책추진비 예산을 책정하였고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시장 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교통비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안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조합 이사.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권 보호를 위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처벌 받은 사안으로 위로는 못해줄망정 이사장을 파렴치한으로 평가하고 재판장에게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자들이 과연 조합원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님들의 업권 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늘 노심초사 노력하여 왔으며, 한 점의 부끄럼 없이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따끔한 조언과 더 잘하라는 따사로운 격려 부탁드립니다. 택시업계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실 속에서 조합이 운영되도록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9. 6. 7.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 승 일

